|  |  |  |
| --- | --- | --- |
|  | **보도자료** **Press Release** | |
| **2014년 1월 14일** |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
| **총 2장** | **담당: 김희선, 오가혜** |
| **전화: 822-3701-7377** | **이메일:** [**communications@asaninst.org**](mailto:communications@asaninst.org) |

**아산정책硏, ‘2014 북한 핵문제 전망과 과제’회의**

**21일 카네기국제평화재단과 공동개최**

* 아산정책연구원이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와 공동 주최하는 북핵회의가 ‘2014 북한 핵문제 전망과 과제 (What Will 2014 Bring for North Korea’s Nuclear Program?)‘을 주제로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소재 카네기평화재단 워싱턴본부에서 개최된다.
* 본 회의는 작년 북한이 강행한 3차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에 따른 지도부 변화로 불안정성은 증가되고 예측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관점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2014년 북핵문제 전망을 위한 북한 핵능력 평가와 그들의 협상 카드를 예측해 본다. 또한 지난 11월 타결된 이란핵협상이 북핵문제에 주는 함의와 이란,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의 선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본 회의는 ‘Net Assessment of DPRK Capabilities and Negotiations(북한의 핵능력 및 협상력 평가),’와 ‘Implications of Iran and South Asia Precedents for DPRK(이란과 남아시아 시례의 북핵문제에 대한 시사점)’의 2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 본 연구원 최강 연구부원장, 신창훈, 박지영, 고명현 연구위원과 카네기평화재단의 토비 달튼(Toby Dalton) 핵정책 프로그램 부국장, 제임스 스코프(James Schoff) 선임연구원, 그리고 前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 조엘 위트(Joel Wit) 등이 참석, 2014년 북핵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과 전망을 내놓는다.

**\* 회의는 영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첨부) 회의 및 프로그램 개요**

|  |
| --- |
| 아산정책연구원 소개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입니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이고 공공의 복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돕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지향합니다. 2008년 설립 이후 국내외 학술교류, 아산플래넘, 아산핵포럼과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China’s Foreign Policy》, 《Japan in Crisis》, 《출구가 없다》 연구 서적 출간 등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2년 펜실베니아대 주관의 세계싱크탱크 랭킹 지역부문에서는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

|  |
| --- |
| **참고 자료** |

**[아산정책연-카네기국제평화재단 북핵회의] 개요**

1. 공동주최 : 아산정책연구원/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2. 주 제 : 「What Will 2014 Bring for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3. 일 시 : 2014년 1월 21일(화), 09:00 AM – 12:00 PM
4. 장 소 : 미국 워싱턴 DC 소재 카네기평화재단
5. 프로그램 개요

- 09:00 ~ 09:15

환영사 (George Perkovich, CEIP)

- 09:15 ~ 10:30 세션 1

“Net Assessment of DPRK Capabilities and Negotiations”

- 10:45 ~ 12:00 세션 2

“Implications of Iran and South Asia Precedents for DPRK”